

TEKTON INVEST

Biweekly Report

29 Sep 2025

중국의 ESS 굴기(崛起) - 2027년 설비 용량 180GW 목표 제시

Summary

2024년 말 기준 중국의 ESS 설비 용량은 73.8GW/168.2GWh로 전년 동기 대비 135%/152%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점유율은 40%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투자가 가속됨에 따라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치 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리튬이온전지의 효율 상승은 ESS 확대의 기술적 요인입니다. 또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며 ESS 수요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중입니다.

Indu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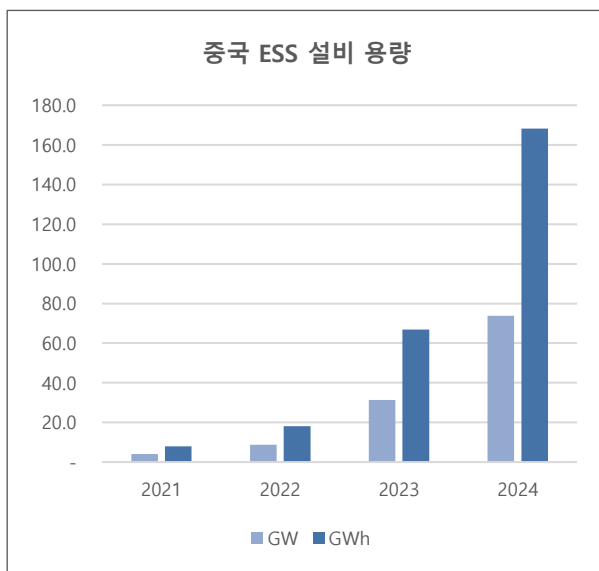
세계 1위 ESS 인프라

2024년 말 기준 중국의 ESS 설비 용량은 73.8GW/168.2GWh로 전년 동기 대비 135%/152%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점유율은 **40%**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투자가 가속됨에 따라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에너지 저장 인프라를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부 업무 보고에 ESS가 포함되며 국가적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도 했습니다. 설비 용량 1GW 이상을 확보한 성(省)은 11개까지 늘어났습니다.

* 2020년 10월 발표한 경제사회 발전 계획으로 내수성장, 기술자립, 녹색경제 등을 강조.

투자 효율 증대 & 수요 급증

리튬이온전지의 효율 상승은 ESS 확대의 기술적 요인입니다. ESS 설치 형태의 96% 이상을 차지하는 리튬이온전지의 생산 비용이 줄어들며 투자 유인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며 ESS 수요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중입니다. 중국 정부는 2,500억 위안을 투입해 2027년까지 ESS 용량을 **180GW**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처: 국가에너지국(NEA)

Value Chain

ESS 시장 선도하는 중국 기업

2024년 기준 글로벌 ESS 용 배터리 출하량은 301GWh(+63%yoy)로 전기차 용 배터리 대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상위 5개 기업의 점유율은 **71%**, 모두 **중국** 기업입니다. 1위는 **CATL**로 110GWh 규모의 ESS 용 배터리를 생산했습니다. LFP에 기술적 강점을 가진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이 글로벌 ESS 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Sungrow Power
 주가 +116.46% YTD
 시가총액 64.5조원



Sungrow Power Supply (300274 SZ) 최근 3년 주가 흐름

출처: Financial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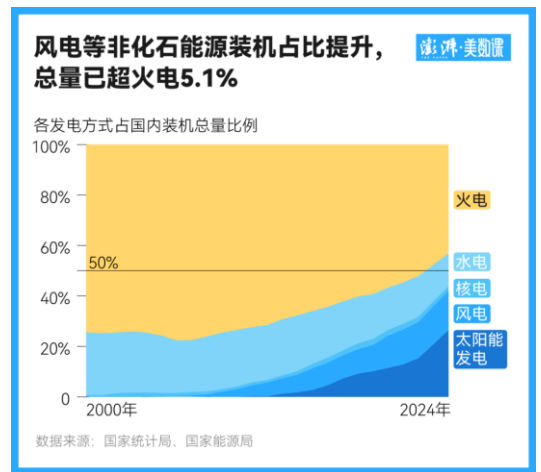
ESS 시스템
글로벌 1위

배터리와 PCS(전력제어장치), EMS(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을 결합한 전체 ESS 시스템을 기준으로 하면 중국의 **Sungrow Power社**가 올해 상반기 글로벌 출하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인버터 기술에 강점을 가지고 유틸리티 스케일 태양광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Sungrow Power는 사업 영역을 ESS로 확장하고 가파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부 매출은 1H25 178억 위안(+128%yoy)으로 전사 매출의 **41%**까지 증가했습니다. CATL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받으며 신규 수주를 빠르게 늘리는 중입니다.

Key Insight

중국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지난 24일 열린 UN 기후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2035년까지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고치 대비 **7~10%**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배출량 감축을 약속한 첫 사례입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를 2020년 대비 **6배** 이상 증가시켜서 친환경 에너지 소비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ی겠다고 계획입니다. 하루 전 기후변화를 '사기극'이라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어, 저탄소 녹색 전환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 중국 전체 설비 용량에서 각 발전 방식이 차지하는 비중
 출처: ThePaper.cn

신재생 에너지
전환점 도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이 이끄는 ESS 수요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말 기준 중국의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1,117GW, 풍력은 579GW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8%, 22% 증가했습니다. 비화석 발전 설비 비중은 **60%**까지 높아졌습니다. AI 데이터센터 등이 유발하는 신규 전력 수요는 이러한 추세를 가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trategy

ESS 산업
재평가 기대

중국의 ESS 경쟁력이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전지 효율 상승과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확대로 ESS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밸류체인은 수년간의 저평가 이후 정부의 과당경쟁 조정과 함께 새롭게 주목받는 중입니다.